

3일간 가상자산 720조 증발... 상승재료 실종, 변동성 클 것

코인 가격 롤러코스터

비트코인 역대급 폭락장 기록 후 7.6% 상승한 10만300달러 거래 캐나다·멕시코 관세 한달간 유예 코인시장 전일 하락분 회복세 보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선언하면서 가상자산 가격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전문가들은 관세 공포가 해소 된다 해도 가상자산 시장의 상승재료가 부족해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대비 7.6% 상승한 10만 300달러대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전날 미국 정부가 촉발한 '관세 전쟁' 우려로 9만1000달러대까지 하락하면서 역대급 폭락장을 기록했다.

지난 3일 알트코인 대장주 이더리움



관세 전쟁 여파로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 밑으로 급락한 가운데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빙셀라운지 강남점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11% 하락했고, 리플(-21%), 솔라나(-10%), BNB(-11%), 도지코인(-25%), 에이다(-26%) 등 주요 알트코인이 폭락을 기록했다.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지난 3일 3조

1000억달러(약 4548조)를 기록하면서 지난 1일 3조6200억달러(약 5306조) 대비 5조2000억달러가 사라졌다. 3일간 약 720조원이 증발한 것이다. 단기시총이 600조원 넘게 증발한 적은 지난

2024년 7월 30일부터 8월6일 이후 6개월 만이다.

가상자산 가격 폭락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부과 조치 발표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기존 관세의 세율을 추가로 10%포인트(p) 올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로 상대국은 물론 미국도 물가 상승 등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악재로 작용했다.

하지만 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시행을 한 달간 유예키로 하고 중국과 캐나다 등과의 협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가상자산시장도 전일 하락분을 회복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시장의 상승재료가 실종된 상황에서 단기적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트럼프 1기 당시에도 관세 부과로 인해 금융시장 변동성을 일으킨 바 있다. 지난 2018년 1월 22일 무역법 세이프가드(section 201) 발동이 무역 분쟁으로 시작됐고 2019년 12월 미·중 1차 무역협약까지 무역분쟁에 따른 주가 조정이 지속됐다.

트럼프 대통령 정치 스타일의 경우 '관세' 카드로 글로벌 국가들과 협상에 임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관세전쟁이 생각보다 빨리 해소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민승 코빗리서치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이 예상보다 빨리 해소될 가능성도 있다"며 "미국 가상자산 실무 그룹이 규제 프레임워크 개선안을 제안하기 위해 180일 안에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규제와 방침 등이 개선될 여지가 있고, 가격 반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환율 1470원 근접, 국제유가 상승까지... 체감물가 또 오르나

탄핵정국 이어 관세정책 '2연타' 물가안정 목표치 2.0% 웃돌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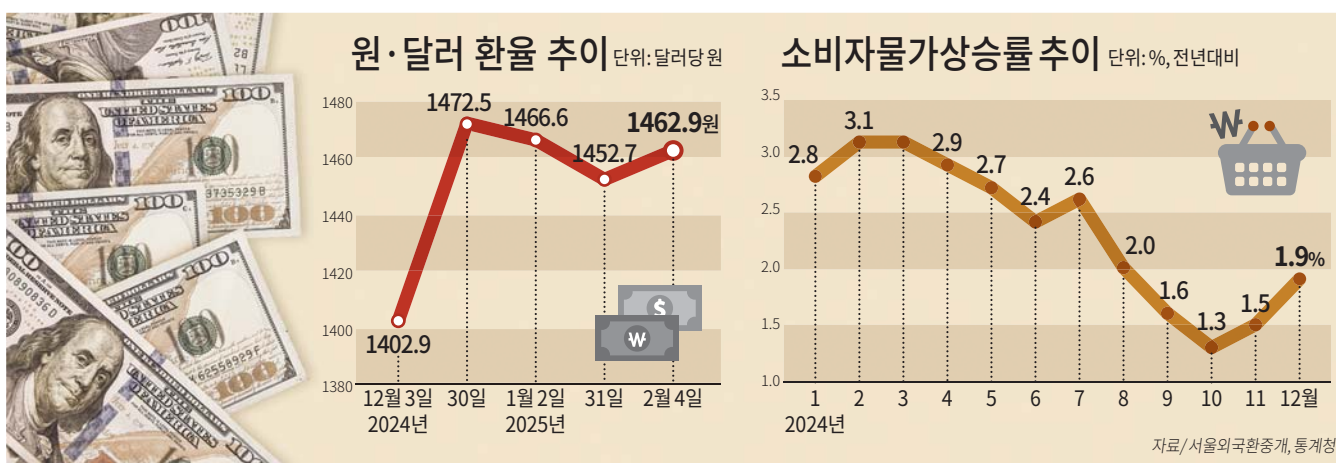
캐나다·멕시코 관세 한달 연기에 유가상승 제한, 추후 상승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한국 경제에 본격적인 영향권에 들어가게 됐다. 1470원대에 근접한 환율에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국제 유가까지 오르면서 체감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4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원·달러 환율(오후 3시30분 종가기준)은 지난달 말과 비교해 10.2원 오른 1462.90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시간을 두고 관세정책이 본격화되면 관세 비용이 수입품 가격에 더해져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물가상승에 고금리가 지속될 것으



로 예상한 투자자들의 자금이 미국에 몰리면서 달러 가치가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물가 안정에도 비상이 걸렸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생산자·소비자 물가 상승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원·달러 환율이 만일 1470원대로 오른 채 유지된다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존 전망치(1.9%)보다 0.15%포인트(p) 오른 2.05%가 될 것"이라고 말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 2.8% ▲2월 3.1% ▲3월 3.1% ▲4월 2.9% ▲5월 2.7% ▲6월 2.4% ▲7월 2.6% ▲8월 2% ▲9월 1.6% ▲10월 1.3% ▲11월 1.5% ▲12월 1.9%로 안정세가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탄핵정국에 1400원에서 1470원대로 올랐던 환율이 체 떨어지기도 전에 트럼프 관세정책으로 1470원대를 이어가면서 물가안정을 위한 목표치(2.0%)를 웃돌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가가 상승하는 점도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될 전망이다.

지난 3일(현지 시간) 브렌트유는 전일 대비 0.29달러 상승한 배럴당 75.96달러에 마감했고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일 대비 0.63달러 상승한 배럴당 73.16달러에 마감했다. 멕시코 캐나다의 관세 부과 조치가 연기되며 상승폭이 제한됐지만, 한 달 뒤 관세 부과가 실시될 경우 또다시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11~12월 중 환율 상승 압력이 누적된 가운데, 같은 기간 천연가스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며 "연초물가가 오르는 계절성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한은의) 물가 목표(2.0%) 수준 근처까지 반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체감물가도 높은 수준을 이어갈 전망이다. 지난달까지는 정부가 실민생대책으로 농축산물 등에 할인을 지원했지만, 기간(1월27일까지)이 끝나 또다시 높은 수준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산물 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배추 소매 가격은 한 포기 4835원으로 1년 전, 평년과 비교해 각각 52.8%, 41.5% 올랐다. 무는 한 개 3065원으로 1년 전보다 99.0% 올랐고 평년보다 67.1% 상승했다.

외식 물가도 상승세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외식 메뉴 가격은 사상 최고 수준을 경신하고 있다.

서울 지역 짜장면 가격은 7423원으로 10년 전에 비해 6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유리 기자 yul115@

최태원, 美 공식방문... 트럼프 만날까

20대 그룹 사절단 이끌고 오는 19~20일 워싱턴 행

최태원 SK그룹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이 20대 그룹 최고경영자들과 함께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이번 사절단은 고위급 면담 등을 통해 현지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로 구성된 '대미(對美) 통상 아웃리치 사절단'이 오는 19~20일 워싱턴 D.C.를 공식 방문한다고 4일 밝혔다.

20대 그룹 참가자는 현재 모집 중으로 아직 명단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총수나 사장급 인사들이 주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에 대한 관세 조치를 공언한 가운데 이번 사절단은 갈라디너, 고위급 면담 등 아웃리치 활



등을 통해 미국 정·재계 인사들과 현지 네트워크를 확대할 예정이다.

19일에는 1897년 개관한 미국의회도서관 '토마스 제퍼슨 빌딩'에서 양국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한미 비즈니스의 밤' 갈라디너 행사가 개최된다.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 상·하원 의원, 정부 고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양국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의 장이 될 전망이다. /김서현 기자 seoh@

올트먼 "韓, AI 관련산업 역량 뛰어났다"

>> 1면 '글로벌 AI 거물 집결...'서 계속

올트먼 CEO는 이날 오전 기자들의 한국 시장 확대 방침 관련 질문에 "물론이다. 한국은 반도체와 에너지 등 AI 관련 산업 역량이 뛰어나고, AI를 적극 도입하는 국가 중 하나"라고 답했다.

다만 오픈AI의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올트먼 CEO는 카카오키즈간담회 질의응답에서도 신중

한 태도를 유지하며 대부분의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오픈AI 한국지사 설립 여부에 대해서는 "일정을 발표할 정도로 구체화된 것은 없지만, 한국은 훌륭한 시장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AI컴퓨팅센터에 대한 투자 가능성에 관해서도 "고려 중이지만 오늘 발표할 내용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파트너십 관련 대화 역시 모두 기밀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김서현 기자